

퍼스널 케어 부문의 천연향료/향수 시장의 성장 기회

“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투명성과 깨끗한 라벨, 이를 위해 AI를 활용하여 제품차별화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Blog, Personal Care Manufacturers ... Fragrances, Aug 26, 2020

- 최근 분석에 따르면, 비건 향수,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향수, 유기농 인증을 받은 퍼스널 케어 및 미용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됨
 - 또한, 최근 3년 사이에 천연향 및 재생 가능한 성분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이 이루어짐
- 전 세계적 규모의 향료 및 향수 전문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
 - 기업들은 고도로 통합된 향수 기술 부문에서 상표와 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혁신 구도를 이룸
- 요즘 소비자들은 유기농 재료나 에코서트(Ecocert), 할랄 인증 등을 받은 천연 유기농 제품을 선호
 - 또한, 성분 라벨을 더욱 투명하게 제시하는 제품(깨끗한 라벨)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
- 기술 혁신에 힘입어 기업이 인공지능(AI) 도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제품 개발의 디지털화와 효율적인 생산에 도움을 줌
 - 이뿐만 아니라 향 제조 시 AI를 사용하면 대체 화학식 또는 대체 성분을 빨리 제안하기에 의사결정 과정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음

- ❏ **(결론)** 퍼스널 케어 부문의 주요 업체들이 연구·개발(R&D)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전체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면 각 기업은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함
- 다국적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인도, 말레이시아, 중동과 같은 새로운 고객층을 겨냥하고, 제품 중간이윤을 향상하고 다양한 고객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지리적 입지를 확장
 - AI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원재료 조합을 만들어내거나 향을 주문 제작(customization)해 소비자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
 - 수증기 증류를 활용해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고,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생합성 경로를 연구
 - 또한, 천연 향기 분자를 사용하는 혁신을 위해 학술 부문 투자를 증대
 -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천연향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신생기업에 투자하여 이러한 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발전을 도와야 함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